

### 일 주 문

**태고종 서울 3寺 순방**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은 총무원 부장들과 함께 9월 25일 서울 봉원사, 백련사, 안정사 등 3사를 순방, 종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링 린포체 초청법회**  
세민 해인사 주지는 7월 1029일 영가천도 열세번째 49재에 티베트 링 린포체를 초청법사로 대적공전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전통영가 합동위원회**  
명섭 구례 화엄사 주지는 14-15일 화엄석경 정대불사 및 지리산에서 전통영가 합동위원회를 연다.

**고산스님 초청법회 봉행**  
도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은 9일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 상제사 조실 고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봉사활동 공로...국민포장**  
해자 도선사 주지는 2일, 매년 경로잔치 개최 등 20여년간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서호노인복지관 개관식**  
성관 수원포교당 주지는 21일 오후 2시, 수원시에서 수탁받은 서호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을 갖는다.

**백제불교회관 체육대회**  
장곡 백제불교회관 관장은 27일 대전 공무원 연수원에서 백제불교회관 신행단체들의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생태조사실장에 선출**  
법현 회통사 스님은 9월 26일 포교원 2층 제2강의실에서 열린 불교환경연대 제2회 정기총회에서 생태조사실장에 선출됐다.

**'우리는선우' 11월 법회**  
박광서 우리는선우 이사장은 12일부터 13일까지 충북 미타사 및 진천 보탑사에서 창립 11주년 기념법회 및 행사를 연다.

**제3기 경영관리자 과정**  
운천수 불교아카데미 이사장은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북악파크 호텔 2층 세미나실에서 제3기 경영관리자과정을 개최한다.

**남북여성통일대회 참가**  
김묘주 한국불교여성연합회장은 16-17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여성통일대회'에 참가한다.

**연예불자 초대회장 피선**  
장미화 불자가수는 9월 30일 서울 프리아호텔에서 열린 연예불자 라이온스클럽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국제포교사 연수 마쳐**  
김인주 미국 LA 불교대학 부학장은 9월 17일 내한, 국제포교사 연수프로그램에 참석하고 4일 출국했다.

**종로갤러리서 개인전**  
장영철 화백은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관훈동 종로갤러리에서 제3회 개인전을 갖는다. '무봉(無峰)' 등 50여점의 수묵화가 선보인다.

## “실현성 있는 공약 이끌어 낼 것”

### 종훈스님 '대정부 정책팀' 운영 방안 밝혀



“대통령 후보들로부터 실현성 있는 공약을 이끌어 낼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불교계에 대한 공약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9월말 구성된 조계종 총무원의 '대정부 정책개발팀'에 대해 기획실장 종훈스님(사진)은 '대통령 후보들의 대 불교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사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돼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팀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팀이 처음 운영되는 만큼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정부 정책개발팀'은 총무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총무원 각 부서별 실무자들이 팀원으로 참여하며, 종훈스님이 총괄하게 된다.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공약의 지위 확보', 즉 책임있는 공약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훈스님은 후보가 직접 공약에 사인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까지 받아내겠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약'이 '호약'이 돼버렸던 과거의 전철을 또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각 후보자 측에서도 불교계 공약을 준비하겠지만, 우리도 언론이나 학계의 자문을 구해 정부정책과 관련한 종단 주요 현안 및 요청 사항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후보자 측과 절충해 실현 가능한 공약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겠지요.” 한명우 기자 [mahan@buddhania.com](mailto:mahan@buddhania.com)

## “한일 불교교류 기여했으면...”

### 한일불교문화학술상 제정 이시기가미 교수



일본에서도 불교문화 연구의 권위자로 통하는 한 노(老)교수의 국경을 넘어선 '한국사랑'이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석좌교수로 있는 이시기가미 겐노(石上善憲·73·사진) 교수. 일본 대정대학 인문학부장을 거쳐 현재 상임이사, 숙덕단기대학 학장(학장은 한국의 총장에 해당)으로 있는 그가 동국대에서 받은 월급을 몽땅 털어 '한일불교문화학술상'을 제정했다.

9월 26-28일 동국대 불교병원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이시기가미 교수는 “동국대에서 받은 월급을 일본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방법을 찾다가 젊은 학자들에게 학문적 자극을 주고, 한·일 불교 교류에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젊은 불교학 연구자 가운데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학자에게 주는 이 상은 대신 일본어로 발표 논문이나 저술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한·일 문화교류의 학문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에 그 성과가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시기가미 교수는 대학원 특강 등으로 한국에 올 때마다 일본에 있는 자신의 불교학 관련 책을 나르기도 했다. “한국이 본단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출간된 책들이다”며 “한국에서 더 유익하게 쓰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소장도서 전체를 기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인종차별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어느 장애인가족의 '힘겨운 삶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영화와 영화 엄마는 꽃가꾸기를 좋아한다. 모나가나란히 화분 옆에 앉아있다. 화 할머니는 아들의 병을 고칠 능력이 없었다. 병이 있는 줄도 몰랐다. 10년 넘게 살아온 중이염은 만성 중이염으로 악화되고, 중학교 때는 피고름이 귓구멍에서 줄줄 흘러 나왔다. 끝내 모든 청력을 잃어버렸다.

이 때문에 영화 아빠는 직장을 구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나마 구한 일거리도 한 두 달만에 쫓겨나기 일쑤다. 그래서 영화 아빠는 남의 집에서 쉼도 없어 버린 물건을 주어야 파는 고물상이 됐다.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

영화는 경춘선 철길 밑 쓰러져 가는 단칸 한옥에서 태어났다. 영화 엄마가 결혼할 때 가져 온 200만원으로 마련한 전셋집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차가 지나가고 그때마다 깜짝 놀란 영화가 자지러지게 울곤 했다. 밤이면 쥐들 때문에 영화네 세 식구는 편히 잠을 잔 적이 드물다. 목발을 짚고 다니지만 영화 엄마는 한 부지런하고 일들

## 헌옷·버린물건 주워 생계

“인력한 주택 건설, 저하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최첨단 주택 문화를 열어 드립니다.” 남양주시 도농동 산동네 마을 밑, 주택 재개발 공사로 프크레인 소리가 여간 시끄럽지 않다.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길을 30여분 걸어 오르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은 집들이 웅기퐁기 모여 있다.

영화네 식구가 사는 달동네이다. 영화네 가족은 2년여 여기서 지하단칸 셋방을 얻어 산다. 가족은 할머니 김금산(78), 아버지 김순철(48), 어머니 진정분(47) 그리고 영화(15). 영화의 아버지는 어릴 때 컷병을 앓아 소리를 들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다. 엄마도 어릴 때 알은 결핵성 관절염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고 무릎 연골이 없는 신체 장애자다. 목발이 없으면 한 발짝 떼기도 어렵다. 할머니는 강연도 두메산골에서 평생 화전민 생활을 했다. 살기가 어려워, 한 때 재가를 하기도 했다. 그것도 잠시, 새 남편마저 얼마 안 돼 사망하자, 평생 과부로 늙었다.

영화 아버지의 학력은 중학교 중퇴, 4살 때 중이염을 앓았다. 남편도 없는데다가 하루 벌여 하루 먹는 처지인 연

### 아버지 청각·어머니 목발 의지 장애인 재개발에 밀려 단칸동지도 잃을 처지



**조동종, 제8차 중앙연수교육**  
조동종총무원장 역담은 1-3일 서울 용천사 보리원에서 제8차 중앙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종정 역담, 일광 총무원장, 법공 포교원장, 덕우 교육원장, 덕림 호법원장, 대휴 중앙선원장 등 총 80여명이 참가한 연수교육은 종단 사경의, 풍우행정 및 운영방안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총회중, 현해탄 수록대제**  
총회중(총무원장 남정)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현해탄 수록대제를 봉행했다. 종정 동광 스님을 비롯 총 450여명이 참가해 전통 의식에 따라 수·육·공·영가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으며, 후쿠오카 남정원 등 일본 불교성지를 순례했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 작품전**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회장 신수승)는 2일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에서 '제6회 한국문화재 기능인 작품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최우수상에는 '보현인석탑'을 조각한 이재순씨가, 우수상에는 '모란당초사군자문어미팅'의 정명재, '석가여래좌상'을 조각한 이용주 등이 차지했다.



**법사회 14돌 기념 금강보탑 봉안**  
대한불교법사회(이사장 목정재)는 창립 14주년을 맞아 3일 서울 신당동 약수법사에서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금강사리보탑 봉안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88년 용산 대원정사에서 출발한 법사회는 현재 전국적 7개 지부에 600여명의 재가법사를 배출했다.



## 바다에서 솟아오른 관세음보살님 점안 연등제

### - 동해바다 신비한 사찰 휴휴암 -

억겁의 침묵을 깨고 만중생을 제도하시려고 해중지혜관음보살님께서 바다로부터 솟아올라 다투셔서 많은 불자들이 참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만해도 감격스럽고 가슴이 뭉클한 모습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묘적전 법당에서 묘한일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본시 관세음보살님은 바닷가 절벽에 항상 계신다고 하였는데 휴휴암 바닷가에 그 몸을 나타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몸을 나타낸 것은 기도정진으로 불교정도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이에 휴휴암 사부대중은 지극한 정성으로 해중지혜관음성상에 점안식을 봉행하게 되었으며 이 날을 맞이하여 관음연등제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불자님께서는 이웃에게 서로 권고하고 권장하여 관음연등제가 원만성취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해중지혜관세음보살님 점안 연등제에 동참하신 여러 불자님들 가정에 이차인연 공덕으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일 혼잡을 피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동참하실분은 미리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열야 쉼터도    10월 29일 화요일(음 9월 23일) 저녁 7시부터 24일 일출시까지 기도후 애뜻이를 합니다.
- ※ 잠안 연등제    일 시 : (음)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관음재일
- 장 소 : 유유암 바닷가 연약법당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033)671-0093, 0525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성지 휴휴암 주지 홍 법 합 장